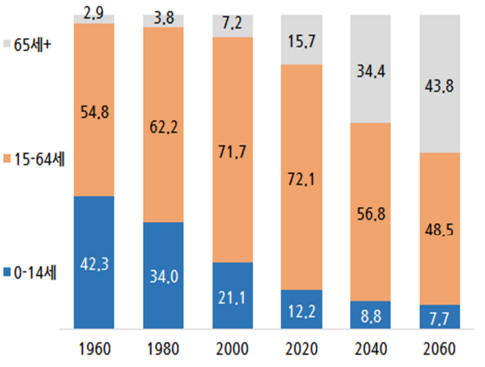
Ⅰ 검토 배경

○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요양의 수요 증가로 사회·경제적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
- 노인인구는 2020년 16%에서 2060년 44%로, 50년 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
  -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0.84명으로 OECD 평균 1.5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
- 최근(2014~2019년) 국민 의료비의 증가폭은 OECD 회원국 평균 0.1%p를 훨씬 상회한 1.7%p임
  - 국민 1인당 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회원국 평균 4.4%의 두 배 정도인 8.7%임
- 장기요양의 수요가 높은 노인 치매 환자는 2020년 84만 명에서 2050년 303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 - 1인·노인가구 증가 등 가족의 노인 부양 여력 축소로 노인요양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요구됨

〈그림 Ⅰ-1〉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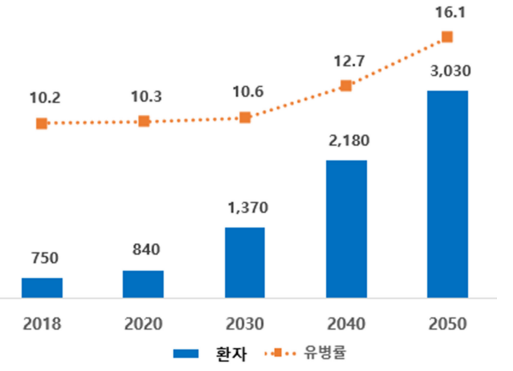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자료: 통계청 보도자료(2021. 12. 9), "장래인구추계: 2020~2070년"

〈그림 Ⅰ-2〉 우리나라 노인 치매 환자 및 유병률 추계

(단위: 천 명, %)



자료: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보도자료(2020. 4. 2), "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 약 75만...중앙치매센터, '대한민국 치매현황 2019' 발간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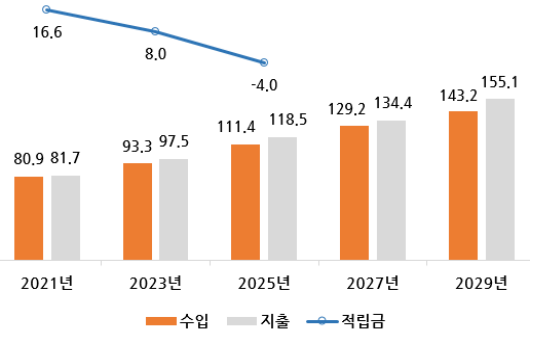
○ 한편,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출이 수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향후 적립금 고갈 및 재정 적자의 우려가 높음

- 2021~2030년 국민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의 예상 연평균 증가율은 7.2%, 8.1%로, 향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, 2025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

• 2021~203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과 지출의 예상 연평균 증가율은 7%, 10.3%로, 2024년 적자로 전환되고, 2028년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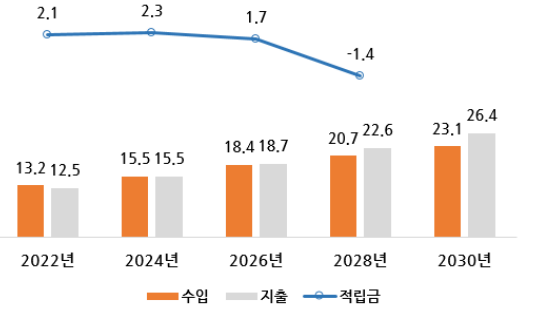
〈그림 Ⅰ-3〉 국민건강보험 재정전망

(단위: 조 원)



〈그림 Ⅰ-4〉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

(단위: 조 원)



주: 1) 국민건강보험(노인장기요양보험) 국고지원금은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) 수입과 연동함
2) 장래 건강보험료율과 국고지원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반영함
3) 장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과 국고지원금 비중은 각각 12.27%(2022년 보험료율), 20%를 적용함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(2021)

○ 또한, 국민건강보험 보완형인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악화 및 노인장기요양산업에 민영부문의 진출 제약 요인이 현재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

• 실손의료보험은 100%를 상회하는 손해율과 두 자릿수의 보험료 인상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공급과 수요 모두 위축됨

• 국내 요양서비스 사업은 영세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요양 수요 충족이 부족한 상황임
  - 높은 초기 투자비용, 불확실한 수익성 등이 대형 민영기업의 진출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

○ 이에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민의료비와 노인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건강보장 제도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봄